

Industry Note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엔비디아, 다시 한번 증명한 독보적인 AI 칩

- The Godfather of AI Delivers Again: China H2O Headwind Well Known. Still Robust

중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한 엔비디아 실적

전 세계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AI의 대부' 젠슨 황과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 넘었다. 엔비디아는 4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8억 달러 가량 상회했으며, 순이익 역시 컨센서스를 웃돌았다.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센터 부문은 전년대비 +73%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향 H2O 관련 비용 요인의 영향은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고, 해당 비용이 없었다면 매출 총 이익률은 71.3% 수준이었을 것이다. 중국 이슈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졌고, 이는 컨퍼런스 콜을 듣는 기술주 강세론자들에게 분명한 희소식일 것이다.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 확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월 분기(FY2Q26) 총 매출 가이드를 45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59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H2O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약 80억 달러의 매출이 감소한 영향을 반영한 수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대중국 제재가 없었다면, 다음 분기 매출은 약 53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I 혁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 수요를 잘 보여준다.

AI 혁신의 주인공은 여전히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코멘트를 종합해 보면 젠슨 황은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소버린/정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까지 10년에 걸친 대규모 AI 투자 사이클을 시작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AI 혁신을 이끄는 전 세계 단 하나의 칩은 엔비디아의 칩이라는 것이 이번 분기 실적과 젠슨 황의 긍정적인 코멘트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광범위한 테크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적 발표이자 가이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AI 혁신이 다음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향후 수 개월 안에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성능이 제한된 새로운 칩을 통해 엔비디아가 중국향 H2O 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면,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에 바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4월 초부터 젠슨 황과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폭풍에 휘말리면서 겪어 왔던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엔비디아와 테크 업계 전반에도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본 리포트는 Wedbush 사의 Analyst Dan Ives가 작성한 보고서('The Godfather of AI Delivers Again: China H2O Headwind Well Known..Still Robust' 5월 28일)를 번역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Wedbush의 투자의견이 반영된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alyst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미국 Wedbush사의 리서치 자료를 기초로 하나증권이 AI 번역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여 국문 재작성 프로세스를 거친 후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Wedbush사와 하나증권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승진, 송종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5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승진, 송종원)는 2025년 5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